

‘학부모 특강’ 자녀와 함께하는 창의융합 영재수학놀이

합평교육청 영재교육원, 이해와 공감의 장 마련
영역별 학습 전략 소개·학습 도움 놀이 체험 운영
“학부모-학생 이해·소통 기회 만들어 갈 것”

합평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원 학부모와 자녀의 수학교육 방향 및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창의융합 영재수학 놀이’를 주제로 학부모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학부모 특강은 영재교육원 학부모와 재원생이 가족 단위로 참석하여 함께 교육을 받는 가운데 서로 간의 생각을 나누고 정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강은 수학 영역별 학습 전략 소개와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되는 놀이 체험으로 운영되었다.

강사 김영대 선생님(승주초등학교 교사)은 수학 개념 및 원리의 관계적 이해, 연산 훈련, 구체적 조작, 수학을 생활 장면과 연관 짓기 다양한 수학 학습 전략을 소개하며 효과적인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독서를 통해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수학 놀이 체험에서는 NIM 게임,

하노이의 탑, 캔센 퍼즐 등을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협동하며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을 때 곳곳에서 부모와 자녀가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모님은 함께 문제를 풀며 자녀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하였고, 자녀는 열심히 수학 체험에 참여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없었는데 학부모 특강을 통해 서로 수학 놀이에 참여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완 합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바쁘고 치열한 시대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하고 동행할 시간이 주



어진다. 앞으로는 참으로 소중한 일이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합평=김광훈기자



목포교육청,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 초등 저학년 담임교사 20명 대상...만족도 높아

목포교육지원청은 6월 22일~7월 6일(5일간, 15시간) 목포전문직학습공동체 전용공간 센터에서 초등 저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기초학력(문해력) 지도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수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해 모집했다.

최종 선정된 연수생들은 대부분 학급에 읽기 부진 학생이 있는 1~2학년 담임교사로 나타났다.

한글 미해독 학생을 지도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라 연수에 참여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진지했다.

이론 공부를 마치고 실제 지도법을 실습하는 시간에는 질문과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연수에 출강한 한 강사는 “여러 지원자를 다녀며 연수를 운영했지만, 목포처럼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며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아이들의 학력도, 목포교육의 미래도 밝을 것 같다”고 강의 소감을 밝혔다.

연수에 참가한 한 교사는 “세심한 배려와 전문성을 갖춘 강사 섭외로 연수 기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담양교육청, 학교 경영 역량 강화 학교장 회의

초·중·고 학교장 26명 참석



담양교육지원청은 6일, 관내 초·중·고 학교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방학 중 주요 업무 안내, 철저한 방역 및 안전한 급식 운영, 학교 경영 우수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전면등교 수업에 따른 코로나 19 감염 발생 시 교직원 비상 대비 체제 구축, 촘촘한 급식 체크리스트를 통한 안전한 학교 생활 운영에 대해 안내하고 농촌유학프로그램 및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봉산초등학교와 글로벌 문화교육을 통

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담양중학교의 우수사례 발표도 공유했다.

만덕초등학교 교장은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의 건강한 방학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또한 2022 지역화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마을 연계 교육 과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자연과학고, 직업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광주형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 양성

광주자연과학고가 6일 회의실에서 ㈜미농테크, 파파레브, 등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사업은 광주지역 청년실업 해소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광주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과 산업현장의 실무교육을 접목해 광주형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산업현장의 직무 분석 ▲현장실습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기술 교류

및 제품 개발 등을 위한 학교와 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본 사업에는 광주자연과학고 식물·자원·조경, 제과제빵, 애완동물관리, 조리 분야의 총 20명의 학생이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학생은 소양 및 직무 교육 120시간을 이수 후 현장실습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해당 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박선미기자

순천대 융합전공 인재 양성 총력

순천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선도하기 위해 1학년 이상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부 과정 5개, 대학원 과정 1개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학문 간의 벽을 뛰어넘는 융합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융합전공’은 기존 학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조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거나 서로 다른 학문 분야들이 융합된 새로운 전공으로, 현재 순천대학교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5개의 융합전공(▲콘텐츠테크니언 ▲천연물약 산업 ▲미래환경 ▲지능의료 기술 ▲스마트농업)과 대학원생을 위한 1개 전공(▲IT-Bio 융합시스템)을 개설·운영 중이다.

순천=김승호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2021년 주택용태양광 3kW

전기를 쓰고 있는 내집이라면 “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 안한 이유가 있나요? 제대로 알아보셨습니까?

정부지원보조금 70%
자부담 30%

2020년 정부지원금 350만원
자부담금 150만원
(2021년도 지원금액 4월 공고 예정)

상담 | 접수 010-4517-1093

매년 당해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참여기업과 계약하여 진행
전국 | 접수 | 방문 | 상담 | 설치하고 관리해드립니다

어디든지 설치 가능

- ① 지붕에 붙여서 설치하는 지붕형
- ② 옥상 위에 설치하는 슬라브형
- ③ 마당 빈공간에 설치하는 마당형
- ④ 주차장 옹도로 설치 주차장형
- ⑤ 현관앞 햇빛가림막 비가림막 차양형

지붕, 옥상은 물론 마당 등 우리집 어디든
낮시간에 그늘만 안지면, 우리집도 태양광 설치 가능

평생 전기요금 절감

태양광3kW 설치후 전기요금절감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설치후요금	연간절감액
350 kW	55,080원	→ 1,130원	647,400원
450 kW	88,130원	→ 6,020원	985,320원
500 kW	104,140원	→ 11,320원	1,113,840원
550 kW	120,090원	→ 16,640원	1,241,400원
600 kW	136,040원	→ 31,570원	1,253,640원
650 kW	151,990원	→ 42,250원	1,316,880원
750 kW	183,900원	→ 63,620원	1,443,360원

* 위 전기요금은 2021년 실제 사용량을 참고한 예시금액